

2026.10.04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미스바 성회
본문: 사무엘상 7장1-17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지난주 이스라엘의 처참하고 황폐한 영, 육간의 모습을 보았다. 블레셋과 전쟁에 패배하고 20년간 압제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사시대의 늘 반복되었던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제사장 가문과 성막, 언약궤를 빼앗기고 무너지는 모습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낙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행하심이다.**[삼상2:35]**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언약의 시간표가 된 것이다.**[삼상7:2]** 언약 잡고 기도한 충실한 사무엘을 통하여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과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걸음이 되길 바란다.

<본론>

1.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사무엘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이 언약보다 자기의 소견을 잡고 있고 제사장 집안마저도 언약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는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다.**[삿21:25]**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고 참 예배를 잃어버리고 미신 종교화 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의 후대들이 언약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다 무너지게 된 이때 언약이 회복되고 참된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것이다.**[삿2:10]** 내 상처와 내 생각으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 기도로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찾은 그를 존귀히 여기신 것이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을 말씀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2.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미스바 성회

▶하나님의 뜻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로 먼저 되어진 것이다. 금방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낙심하지 않고 기

도하고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점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긴다.**[삼상7:3-4]** 이때 미스바를 선포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힘들 때만 울부짖고 곧 원래대로 돌아가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미스바는 달랐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심을 가졌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이 결단하여 여호와만 섬겼다.**[삼상7:6]**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금식하고 자복했다. 죄의 용서는 자복한다고 해서 내 행위로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죄는 하나님께 범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무조건 죄를 사하지시는 않으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 죄의 값을 치를 자를 찾으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 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 자복하는 것으로 해결 받는 것이 아니다.**[삿2:18-19]**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 언약 앞에 나와 십자가로 해결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리스도 앞에 서길 원하신다.

3.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온전히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황폐를 변화시키고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큰 역사가 임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뿌리가 바뀌는 진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사무엘의 기도로 바꾼 것이다.**[삿25:41]**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왕 앞에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삶도 회복되는 것이다.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한다.**[삼상7:9]** 하나님은 우박으로 블레셋을 초토화 시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에벤에셀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손으로 막고 도우시며 회복하게 하신다.**[삼상7:12-14]**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제 실현되어 사무엘을 통해 다스림이 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끄신다.**[삼상7:15-17]** 이 모든 것을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은 이 뜻을 성취해 가실 자에게 역사하신다. 사사기를 종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소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한다.